

# “순천만정원 야간 별빛산책으로 코로나에 지친 마음 힐링하세요”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산책으로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서원에서 18일 오후 5시30분 점등을 시작으로 내년 2월14일까지 59일 간 '야간 별빛산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펼쳐지는 순천만 정원 별빛산책은 일상을 벗어나 꿈 속 환상의 공간을 주제로 한 '판도라의 숲'과 별빛으로 물든 국가정원, 눈 내리는 겨울정원, 야간경관이 주요 관람 포인트다.

'판도라의 숲'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뿔별 사이로 떨어진 운석 한 조각에서 강력한 빛줄기들이 뿜어나와 나무도감원에 잠들어 있던 흑두루미들

내일 점등...내년 2월14일까지

'판도라의 숲' '겨울정원' 포인트

이 빛에 물든 채 깨어나고, 정원은 신비한 환상의 공간들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공간 연출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첨단 소재인 광섬유 등을 사용해 주야간 이질감을 최소화했다.

반짝이는 조명을 따라 국가정원 서문으로 입장하면 아바타의 숲이 형형색색으로 관람객을 반기고, 하늘정원까지 관람객의 발걸음을 이끈다. 하늘정원 가는 길인 '스노우 가든'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눈 내리는 특별한 겨울밤을 즐길

수 있다.

순천만WWT습지에는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문구 연출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한다.

별빛산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무도감원과 하늘정원 모두 일방통행으로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 출입 시 개인 발열 체크와 출입자명부 작성,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방문객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겨울밤 따뜻한 쉼과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산책 조감도.

## 순천만 국가정원·순천만 습지, 6년 연속 '웰니스 관광지'

문체부·관광공사 추천 자연·숲 치유 부문 선정

순천시는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한국관광공사 선정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2021년까지 6년 연속이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습지는 지난달 이뤄진 2021년 선정 지속 여부

재지정 평가에서 웰니스 콘텐츠 적절성, 관광객 유치에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자연·숲 치유 부문에서 6년 연속 선정됐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전국의 웰빙·치유·휴식 프로그램을 보유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힐링 관광지로 2년마다 지정되며 2020년 기준 자연·숲 치유 부

문에서 13곳이 선정됐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해외 홍보, 팸투어·웰니스 관광지 연계추천 관광코스와 같은 여행상품개발 및 판촉 활동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민과 함께 가꾸어온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2021년에도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꾸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늦깎이’ 할머니들의 꿈과 도전, 뮤지컬로 본다

글·그림 배워 작가 된 할머니의 삶 17~20일 순천문화건강센터 공연

늦은 나이에 글과 그림을 배워 일약 작가의 반열에 오른 할머니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창작 뮤지컬 '순천 소녀시대'가 17~20일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몰랐지만 하루하루 힘겨운 살아온 할머니들의 삶이 노래와 함께 펼쳐진다.

짚어지는 가난과 가부장적인 환경 속에서 버텨야 했던 회한과 슬픔도 담담하게 그려진다.

뒤늦게 글을 배우고 그림까지 그려 책까지 펴낸 할머니들의 열망과 도전도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연출은 순천 출신의 오페라 연출가인 정갑균 씨

가 맡았고 음악은 들국화의 음악감독 출신인 박환씨가 담당했다.

주제곡인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가 창작곡으로 선보이고 60~70년대 주옥같은 대중음악도 무대에 오른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연장 좌석 띄우기와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진단표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공연을 할 계획이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에는 입장이 거부된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비대면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그림책도서관 한글작문교실의 할머니들은 지난 2018년 '내 인생 그림일기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글과 그림을 배웠으며 지난해에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남해의 봄날)를 펴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시,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내 이면도로 5개 노선 655m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먹거리타운 일부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했다.

국비 2억원과 시비 등 4억2000만원을 들여 보행자 유도 인구가 많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부 구간에서 보행자가 편하게 걷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

보행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친화적 도막형 컬러 포장으로 디자인했으며 진입로 속도 저감 시설인 고원식 횡단보도, 소형 고압 불룩(판석) 포장 4개소, 도로변 데크 쉼터 편의시설, 식재형 화



단과 화분을 이용한 교통정문화 시설을 설치했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국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들여 중마동 중심부인 중동근린공원 및 백운초교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관광 웹드라마 '호접몽' 아시아웹어워즈 대상

올해만 국제웹영화제 2연속 수상

여수시는 웹드라마 '호접몽'이 아시아웹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호접몽'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제4회 2020 아시아웹어워즈에서 대상인 '베스트 웹시리즈 오브 올 장르상'을 받았다.

여수시가 5번째 제작한 '호접몽'은 지난 8월 제6회 서울웹페스트에서 베스트 드라마상을 받았다.

이번에 아시아웹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음에 따라 여수시는 5년 연속 국제 웹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아시아웹어워즈는 2017년부터 초청작 발표부터 시상식까지 전 과정을 유튜브와 SNS에서 생중계하는 아시아 최초의 온라인 웹 영화제다.

여수관광 웹드라마 '호접몽'은 공상과학 장르를 시도해 미래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여행을 스토리에 잘 녹여낸 작품이다.



지난 5월 시민 시사회와 함께 유튜브에 공개됐으며 2020 독일 기센(Gissen) 웹페스트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8월에는 서울웹페스트에서 브라질 리우 웹페스트와 미국 미네소타 웹페스트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다.

이번 아시아웹어워즈에서는 2021 이탈리아 아폴리아 웹페스트와 영국 브리티시 웹페스트에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